

王陽明의 理想的 國家論 (五)

저자미상

浩然의 氣도 本體를 良知에 置치 아니하면 不可하나니 良知의 號令下에 動하여 浩然의 氣가 비로쇼 浩人의 氣를 發揮하여 無限의 活動을 起來하는 것이로다. 至大至剛하여 大地에 充塞한다함은 卽 良知의 活動을 謂함이다. 此 良知의 活動이야말노 眞正한 自由라 할 것이요, 完全한 自由란 것은 陽明의 理想國家에서 完全히 實現할 것이로다.

獨立이라 하는 것도 良知를 □하여 求치 못할지니 天地를 動하는 根本의 力을 □하여 何에 獨立이 잇스리오. 何物로도 制裁하며 干涉치 못하는 □往 獨步의 生活은 良知를 活捉함에 잇스며 良知에 依하여 生活함에 잇도다. 眞正한 獨立이란 것은 良知를 生命으로 하며 血肉으로 하여 良知에 의하여 言行하며 活動함에 在하도다. 宇宙 人生의 本體를 疑한 生活은 萬事와 萬端이 무타의 舟가 大海에 浮하는 것과 恰似하여 危苦하기 限이 업도다. 眞正한 獨立의 生活을 要求하는 者는 반다시 陽明의 이른바 良知를 捉하여 此를 魂魄으로 하며 血肉으로 할 것이다. 完全한 獨立生活은 陽明의 理想國家에 在하여 完全히 成就하는 것이로다. 平等이란 것도 陽明의 理想國家의 主要條件인 바 人은 良知를 本具함에 在하여 모다 平等이요, 生과 同時에 稟賦된 天의 靈性を 本具하여 努力과 修行에 依하여 사름마다 聖人이 될 수 잇나니 各自의 腦中에는 天이 自有하여 寂光淨土도 잇스며 眞如天國도 잇도다. 此 天國을 腦中에 有함에 在하여 人은 모다 平等이로다. 唯小人과 凡人은 私慾과 私心으로 因하여 本體를 蔽하여 本來의 天國이 暗雲에 塞함에 不過하나니 此 暗雲만 掃去하면 各人의 腦裏에는 스사로 一天靈明의 光彩가 盈滿할지니, 사름마다 良知를 有하며 明德을 有함에 平等인즉 此 平等觀의 上에 立하여 自我의 本具한 明德을 發揮함에 勇猛精進하는 것이 즉 陽明의 理想國家의 生活이로다.

人間을 모다 良知의 體現으로 觀하며 人間은 모다 聖人될 本性을 有한 것

으로 說하는 곳에 茲에 人格과 人權의 意義가 嚴히 神聖하며 尊嚴하게 되는 도다. 人格의 尊嚴과 人權의 神聖은 陽明의 理想國家에서는 最高度로 表現하며 保障되얏도다. 創造라 하는 것도 良知의 活動을 創立함을 謂함이니 良知 創造의 努力이 有하여 茲에 처음으로 眞正한 進歩가 잇스며 發達이 有하여 眞正한 文明이 成就되는 것이로다.

良知는 大宇宙의 本體인데 宇宙는 無限의 生命과 活動에 依하여 動하는 것이요, 從하여 人間의 努力에 依하는 發明과 發見에 依하여 良知는 無限히 進歩되며 發達되는도다. 良知는 決코 一定 固着하여 停滯하는 것이 아니요 萬物에 流動하는 一貫의 活動體인 바, 이것이 無限의 活動으로써 無限의 進歩를 遂하는 것이다. 故로 古人의 이른바 日新日日新又日新이라함은 良知의 進歩를 指함이니 良知의 本體와 活動과 □明白히 하여 眞善美를 創造하고 時刻으로 進歩 向上의 努力에 生하는 것이 人間 生活의 任務가 되나니 眞正한 創造的 進化는 陽明의 理想國家에 在하여 □히 嚴正하며 切實하게 實現되는 도다.